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4.11.3 (576호)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추수감사주일

11월 24일(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4. 교우동정

11월 중 한국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한 여정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 안부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례판정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0/27)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605.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9장 49-62

말씀선포 Sermon 머리 둘 곳 없는 나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1월 10일

11월 17일

전주은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다함께

다함께

Chris Choi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설교주제 Sermon Summary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일부러 종교개혁주일에 창립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 마틴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당시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선포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과 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백성들을 속이고 종교를 이용해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역사 500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보다 더 깨끗하고 더 본질로 돌아갔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전하는 신앙마저도 온전히 본질적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더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보면, 성경은 마치 우리의 현실을 예견이라도 한듯이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마자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고쳐 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청을 듣고도 전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직언을 쏟아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언제나 나라는 자아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그 뒤로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도 서로 누가 크냐라며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좌의정 할꺼냐 누가 우의정 할꺼냐의 주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딱 이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 달라고 죽을 등 살 등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서 가르치던 바울이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가 고쳐줄께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약할때 강함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강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약함과 무너짐을 인정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일부러 종교개혁주일에 창립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 마틴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당시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선포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과 개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백성들을 속이고 종교를 이용해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역사 500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보다 더 깨끗하고 더 본질로 돌아갔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전하는 신앙마저도 온전히 본질적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더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보면, 성경은 마치 우리의 현실을 예견이라도 한듯이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마자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고쳐 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청을 듣고도 전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직언을 쏟아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언제나 나라는 자아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그 뒤로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도 서로 누가 크냐라며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좌의정 할꺼냐 누가 우의정 할꺼냐의 주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딱 이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 달라고 죽을 등 살 등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서 가르치던 바울이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가 고쳐줄께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약할때 강함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강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약함과 무너짐을 인정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